

고부가 식품산업의 현황 및 전망

Overview of the Food Industry in Korea

김 성 훈
Soungun K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 서 론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약 100조원¹⁾에 달하고, 종사자수도 약 1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최근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먹을거리”를 다루는 산업인 식품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식품산업을 1차 산업의 산물인 농림축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당 산업의 동반 발전을 유도하는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설정하고, 과거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나 관련 학계 등에서도 식품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구조와 실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

은 상태이다.

본고에는 식품산업의 개념과 여건 등을 개관한 다음, 주요 산업별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식품산업을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재료산업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식품산업은 크게 식품가공산업과 외식산업으로 양분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나, 식재료산업이 이들 산업에 원료인 식재료를 공급하고 1차 산업인 농림축수산업을 연계하는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논의가 매우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요 논의 대상 중의 하나로 삼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식품산업의 기본 현황과 주변 여건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산업별 현황을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재료산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II. 식품산업의 현황

1. 기본 현황 및 여건

1) 기본 현황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고는 필자가 그동안 작성한 논문들의 내용을 참조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1) 식품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기준.

Corresponding author: Soungun Kim
Center for Agro-Food Policy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9-1 Hoegi-Ro, Dongdaemun-Gu, Seoul, 130-881, Korea
Phone: +82-2-3299-4000
Fax: +82-2-965-6950
email: shkim@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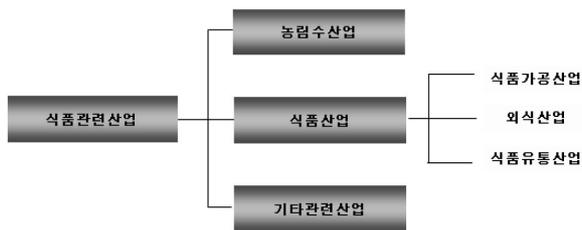


그림 1. 식품산업(food Industry)의 개념

우리나라 식품산업(food industry)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자들 사이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상태이나, 최근 정부가 제정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식품산업”은 식품의 가공·제조·보관·유통·조리·소비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²⁾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산업의 범위에는 그림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식품가공산업(food processing industry), 외식산업(food service industry), 식품유통산업(food marketing industry) 등이 포함된다(이동필 외 2001, 황수철 외 2005).

이중 식품가공산업은 원료 농림축수산물을 가공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2 차산업에 해당되고, 외식산업은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3 차 산업으로 분류된다.

2차 또는 3차 산업으로서의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표 1. 식품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10억원, 천명)

		1999	2000	2002	2004	2006
매출액	전체	69,446	72,672	83,140	96,136	99,838
	식품가공산업	36,187	37,200	42,649	47,767	48,946
	외식산업	33,259	35,472	40,491	48,370	50,892
종사자 수	전체	1,507	1,608	1,769	1,742	1,636
	식품가공산업	174	178	183	186	185
	외식산업	1,333	1,430	1,586	1,556	1,450

주: 음식료품제조업은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자료: 통계청(www.kosisi.kr)

농림수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이 농림수산물을 소비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외식 및 가공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약 100조 원에 달하고, 종사자수도 약 164만명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가공산업의 매출액은 1999년 36조원에서 2006년 50조원으로 성장하였고, 외식산업도 매출액이 1999년 33조원에서 2006년 51조원으로 증가하였다(표 1).

종사자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식품가공산업과 외식산업의 종사자수가 1999년 각각 17만명, 130만명에서 2006년 19만명, 145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식품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GDP 비중을 통해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것

표 2. 식품산업과 식품가공산업의 GDP 비중

단위: %

산업	1990		1995		2000		2003		2005	
	비중 ¹⁾	비중 ²⁾								
농림축수산업	55.1	8.8	48.6	6.3	42.2	4.8	37.4	3.7	36.2	3.3
식품산업 ³⁾	24.2	3.9	31.2	4.0	37.0	4.2	39.9	3.9	40.1	3.7
식품가공산업	11.6	1.9	13.4	1.7	14.8	1.7	14.7	1.5	15.2	1.4
외식산업	12.6	2.0	17.7	2.3	22.1	2.5	25.2	2.5	24.8	2.3

주 1) 해당산업이 농림축수산업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2) 해당산업이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3) 식품산업에서 유통업은 제외

자료: 김철민 외 (2007) 일부 수정

2)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음식료품산업은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가공업과 냉동보관업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협의의 정의가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매출액, 고용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련 통계 수치들이 과소 계측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과 같이 1990년 3.9%에서 2005년 3.7%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 감소는 1990년 8.8%에서 2005년 3.3%로 크게 감소한 농림축수산업과 대조를 보인다. 그리고 식품산업이 농림축수산업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2%에서 40.1%로 크게 증가하여 식품산업이 농림축수산업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중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식품가공산업 또한 식품산업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9%에서 2005년 1.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농림축수산업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1.6%에서 2005년 15.2%로 증가하였다. 외식산업의 경우, 농림수산물관련산업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뿐만 아니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짐작할 수 있다.

2) 식품산업의 여건

식품산업의 환경은 산업의 성장 및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데, 식품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바뀔에 따라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3에 제시된 우리나라 소비자 가구당 식품 소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식품 소비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어 식품시장 규모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당 식품 소비지출에서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지

출 비중을 살펴보면 1982년 77%에서 2007년 39%로 크게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동기간동안 17%에서 1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1982년 6%에서 2007년 47%로 7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집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대신 가공식품 또는 외식을 통한 식품소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지출은 1982년 약 18,000원에서 2007년 약 80,000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식품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식품 소비의 편의성을 배가시키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의 상당부분을 건강 지향적인 식품 소비로의 트렌드 변화가 상쇄한 결과로 판단되어진다. 편의성과 건강 지향성에 대한 식품 소비 성향 변화는 외식 시장 내에서의 판도 변화로도 추정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웰빙(well-being)관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성공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식품시장의 개방 확대는 외국산 식품의 국내 유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국내 식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표 4의 식품의 품목별 수입 추

표 3. 소비자 가구당 식품 소비지출 추이

단위: 원, %

구분	식료품 전체(A)	신선(B)	가공(C)		외식(D)	비율	
			B/A	C/A		D/A	D/A
1982	101,653	78,085	76.8	17,487	17.2	6,081	6.0
1985	118,901	88,576	74.5	21,454	18.0	8,871	7.5
1990	220,834	144,667	65.5	31,323	14.2	44,844	20.3
1995	367,080	203,404	55.4	47,931	13.1	115,745	31.5
2000	447,019	216,013	48.3	55,016	12.3	175,990	39.4
2005	551,584	218,145	39.5	77,589	14.1	255,850	46.4
2006	558,344	219,973	39.4	80,090	14.3	258,281	46.3
2007	570,426	222,622	39.0	79,871	14.0	267,933	47.0

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수지 항목별 자료임.

자료: 통계청 www.kosis.kr 가계조사 (도시, 2인 이상).



표 4. 식품의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건, 톤, 천 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계	건수	133,761	147,742	166,723	185,299	191,152	208,488	231,316
	물량	10,350,534	10,514,267	10,487,775	11,118,937	11,442,996	11,248,266	11,216,258
	금액	4,036,497	4,282,715	4,621,414	5,801,381	6,070,848	7,005,231	7,582,253
가공 식품	건수	70,474	84,080	97,344	110,816	110,967	126,420	141,474
	물량	2,640,189	2,851,150	2,968,110	3,118,087	3,432,415	3,554,102	3,706,986
	금액	1,786,830	2,052,392	2,270,464	3,070,556	2,703,101	3,663,821	3,459,744
식품 첨가물	건수	21,632	22,456	24,758	25,767	27,613	28,227	30,038
	물량	109,949	120,139	129,597	140,400	162,956	167,172	172,740
	금액	301,534	345,483	367,650	387,169	418,247	475,370	469,812
가구· 용기포장	건수	20,249	19,425	21,158	20,056	20,256	20,790	24,161
	물량	161,482	158,179	187,441	192,210	169,723	178,299	188,785
	금액	404,189	380,114	440,874	435,992	452,044	529,478	603,967
농·임산물	건수	21,406	21,781	23,463	28,660	32,316	33,051	35,643
	물량	7,438,914	7,384,799	7,202,627	7,668,240	7,677,902	7,348,692	7,147,745
	금액	1,543,944	1,504,727	1,542,426	1,907,664	2,497,456	2,336,561	3,048,72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통계연보 각 년도

이를 살펴보면, 전체 식품 수입액이 2000년 약 40억 달러에서 2006년 약 76억 달러로 1.9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 현황을 비교해보면 수입건수와 금액에 있어 가공식품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공식품이 농·임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더 크고 유통기한도 긴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해외 식품의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앞으로 농·임산업 같은 1차 산업보다는 가공식품산업이 포함된 2차 산업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과 2006년의 가공식품의 수입물량과 수입금액의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수입물량은 해당 기간 동안 약 40% 증가한 것에 비해 수입금액은 약 94% 증가하여, 물량보다 금액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되는 가공식품 품목이 점차적으로 부가가치가 더 큰 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입식품의 변화는 농·임산물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데, 실제 농·임산물의 2000년 약 744만 톤

에서 2006년 715만 톤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에 금액은 2000년 약 15억 달러에서 2006년 약 30억 달러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수입 가공식품의 품목별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식육제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인 가공식품은 식용유지류와 두부·묵류, 김치·절임식품으로 나타났다. 식용유지류는 식용유와 참기름 등의 가정이나 식당 조리용 유지류와 가공식품 제조의 원료용 유지류로 구성되는데, 식용유지류의 급격한 수입 증가는 튀김이나 무침 등의 식단이 증가하고, 식용 유지를 사용한 가공식품³⁾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두부·묵류와 김치·절임식품의 증가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산 식품 수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통해 제조된 중국산 식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저렴한 식품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빈번한 식품

3) 식용 유지를 사용한 가공식품 중에는 스낵류와 면류 등이 대표적임.

표 5. 주요 가공 식품의 수입 추이: 2006년 수입액 순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률 (00~06)
어육제품	98,386	109,539	123,179	116,808	109,444	154,822	424,408	331.4
식용유지류	32,115	35,549	48,498	60,969	227,959	398,862	370,499	1,053.7
주류	208,006	248,354	366,054	1,050,929	284,014	926,439	325,836	56.6
과자류	133,838	169,469	189,818	203,181	208,218	279,637	256,143	91.4
김치·절임식품	17,855	25,933	29,337	52,947	94,547	133,610	159,103	791.1
조미식품	83,506	84,721	91,266	102,934	111,803	128,532	141,474	69.4
건포류	30,212	41,075	65,566	71,816	77,224	87,060	104,234	245.0
다류	26,991	28,787	35,352	45,227	257,450	67,254	60,979	125.9
음료류	120,235	16,830	132,631	102,775	88,429	67,870	53,747	-55.3
당류	13,067	14,915	16,863	23,072	31,065	36,937	48,010	267.4
면류	26,765	27,551	61,943	31,465	37,036	42,116	46,443	73.5
식육제품 ¹⁾	214	62	1,618	9,336	17,174	32,633	45,167	21,006.1
두부류·묵류	206	80	968	978	815	1,135	2,349	1,040.3
아이스크림류	397	867	788	625	373	269	1,023	157.7
인삼제품류	2,535	4,153	3,467	4,856	944	447	211	-91.7

주 1) 기타 식육가공품(식육제품은 농림부로 이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통계연보 각 년도

위해 물질 잔류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인삼제품류와 음료류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삼의 경우 우리나라 인삼제품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른 현상이고, 음료류는 대부분의 국산음료의 원료 농축액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음료와의 가격 경쟁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국산 과즙음료의 경우 감귤 주스와 일부 사과주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즙음료의 원료 농축액으로 수입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산업별 현황

1) 식품가공산업

식품산업의 하나인 식품가공산업은 원료 농림축수 산물을 가공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이다. 식품가공산업의 하위분류로는 통계 작성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의 경우 식품가공산업(음식료 제조업)의 하위 산업으로 육가공, 수산가공, 과채가공, 식용유지, 유가공, 곡물가공·전분·사료, 기타식품, 알코올음료, 비알콜음료 산업 등으로 산업체 중심의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식품가공산업을 과자류, 당류, 아이스크림제품류,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식용유지, 면류, 다류,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조미식품, 얼음, 인삼제품류,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기타식품류, 일반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식품 품목별로 분류하고 있다.⁴⁾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 정부기관마다 식품가공산업의 하위분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데, 이는 관련 연구나 정책 개발에서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주요 식품의 품목별 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4)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가공산업 관련 통계 중 식육제품의 경우 축산가공품을 제외하고 있는 데, 이는 축산가공산업의 소관이 농림수산물부문에 따른 것임.

표 6. 주요 식품의 품목별 생산 실적: 출하액 상위 20개 (2006)

단위: 톤, 천원, \$

순위	품목명	품목군	생산량	출하액	수출액
1	면류	유당면류(봉지라면)	347,420	1,092,328,499	37,120,201
2	음료류	탄산음료류	1,143,634	948,937,676	13,031,992
3	일반가공식품	수산물가공품	227,466	929,054,753	206,966,568
4	음료류	과실채소류음료	962,909	920,873,870	26,654,392
5	음료류	기타음료	666,903	834,940,721	22,852,541
6	일반가공식품	기타가공품	405,766	716,293,940	89,491,979
7	기타식품류	밀가루	1,692,198	694,476,305	3,518,117
8	과자류	초코릿류	116,890	665,114,599	22,107,715
9	과자류	과자류	253,684	640,139,557	1,625,472
10	당류	설탕	1,265,125	636,805,111	143,157,722
11	다류	조제커피	177,445	599,959,808	16,015,999
12	과자류	스넥과자류	145,276	588,654,112	14,544,790
13	조미식품	소스류	197,914	544,509,674	6,158,152
14	조미식품	복합조미식품	117,674	543,133,077	14,866,840
15	과자류	비스킷류	116,372	536,893,154	10,034,977
16	김치절임식품	배추김치	296,343	488,871,172	83,599,717
17	과자류	케이크류	67,088	463,058,314	513,735
18	면류	유당면류(용기면)	87,116	425,750,594	25,865,858
19	아이스크림제품류	빙과류	170,222	381,510,694	815,744
20	식용유지류	콩기름(대두유)	314,228	352,398,238	1,504,695

주: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자료: 식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 2006

표 6과 같다. 2006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출하된 식품은 면류로 봉지라면이 해당된다. 또한 음료류와 일반가공식품, 과자류, 당류 등이 식품시장에서 많이 출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기준으로 주요 식품 품목을 살펴보면, 수산물가공품과 설탕이 가장 많이 수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가공품의 경우 일본 등의 수산식품시장에서 국산 수산물가공품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설탕산업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가공하는 장치 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식품가공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제시되었듯이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가 전체 식품가공업체수의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

을 정도로 산업의 규모화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식품가공업체가 30% 정도를 차지하여, 연간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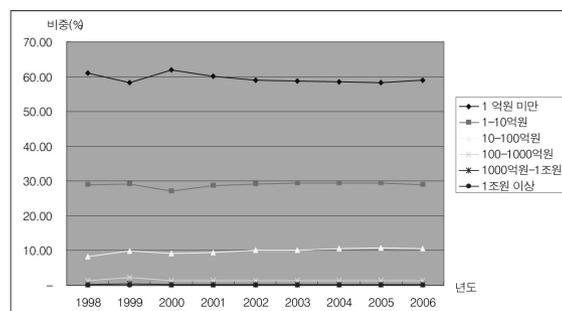


그림 2. 식품가공업의 매출액 규모별 현황: 업체수 비중
자료: 식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 각 년도

액 10억 이상 업체의 비중이 전체 업체수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식품가공업체는 2000년에 1개 업체(농심(주))가 나타난 이후, 2006년에 3개 업체(농심(주), CJ(주), 롯데칠성음료(주))로 나타나, 대규모 업체의 식품가공품 시장 진입을 보여주고 있다.⁵⁾

매출 규모별 업체수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와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업체들의 업체수 비중이 각각 1999년과 2000년에 감소하였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사태 발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영세 규모 업체들이 보다 강하게 받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0년 이후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중·대규모 업체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식품가공산업의 규모화의 진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식품가공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해 매출액 상위 4대 업체들의 시장 집중도인 CR4⁶⁾를 계측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CR4가 50%이상인 주요 산업은 아이스크림제품류(91.7%), 특수영양식품(86.6%)⁷⁾, 면류(79.5%), 당류(71.6%), 다류(68.0%), 청량음료(63.0%), 인삼제품류(55.2%), 식용유지(53.7%) 산업으로 분석되어, 시장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김치·절임식품과 얼음 산업은 CR4가 10% 내외로 시장 집중도가 극히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었고, 건포류, 일반가공식품⁸⁾, 두부류 산업의 CR4가

20%대로 계측되었다. CR4가 30~40%인 주요 식품가공산업으로는 식육제품⁹⁾, 기타식품류¹⁰⁾, 어육제품, 과자류, 조미식품¹¹⁾ 등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표 7에 제시된 주요 식품가공산업중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체가 존재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아이스크림제품류 산업, 면류 산업, 특수영양식품 산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해당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표 8에 정리되어 있다.¹²⁾

이 중 시장 지배적 사업체가 가장 많은 식품가공산업으로는 아이스크림제품류 산업으로 3대 업체가 모두 시장 지배적 사업체로 분류되었다. 면류 산업의 경우 매출 1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 2위 업체는 점유율이 10% 초반에 머물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매우 강한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2) 의식산업

의식산업은 가정 외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정의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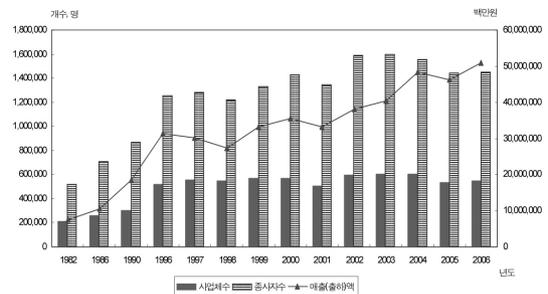


그림 3. 의식산업의 사업체수, 매출액과 종사자수 추이
 주: 한국표준산업분류(2000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내에 음식점업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www.kosis.kr

5) 2000년 농심(주)의 연간 매출액(국내 출하액 및 수출액 포함)은 약 1조 2백억원이었고, 2006년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연간 매출액은 농심(주)이 약 1조 4천 3백억원, CJ(주)가 약 1조 3천 8백억원, 롯데칠성음료(주)가 약 1조 6백억원으로 나타났다.

6) 식품가공산업의 시장집중도를 계측하기 위한 지표들로는 매출액 상위 4대 업체들의 시장집중도(CR4),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 로렌츠-뮌저 지수(Lorenz-Muenzer Index) 등이 있음. 본 논문에서는 사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매출액 상위 4대 기업들의 매출액 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측한 값인 CR4를 사용함.

7) 특수영양식품산업의 주요 식품으로는 영·유아 조제식(분유 포함),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등이 해당됨.

8) 일반가공식품의 주요 식품으로는 곡류 가공품, 과실류 및 채소류 가공품, 수산물가공품, 당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등이 해당됨.

9) 식품제품 산업의 주요 식품으로는 보쌈, 닭, 족발 등이 해당됨.

10) 기타식품류 산업의 주요 식품으로는 즉석건조식품, 견과류 가공품, 전분, 씨리얼류 등이 해당됨.

11) 조미식품 산업의 주요 식품으로는 장류, 소스류 등이 해당됨.

12)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요건과 점유율 요건의 두 가지 기준에 동시에 맞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매출액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이며, 점유율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임. 단 상위 3개사 중 매출액점유율이 10%미만인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표 7.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별 집중도 추이: CR4

단위: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아이스크림 제품류	78.5	75.2	72.8	85.1	81.3	84.8	81.0	82.2	91.7
특수영양식품	74.8	77.9	71.0	60.3	55.4	62.9	64.3	79.8	86.6
면류	75.6	79.7	78.6	81.1	80.7	82.7	86.0	81.3	79.5
당류	73.2	69.1	67.7	70.7	68.9	70.2	69.6	70.4	71.6
다류	79.1	73.3	72.7	68.6	66.6	64.4	67.4	64.1	68.0
청량음료	65.2	64.9	67.8	69.5	62.9	63.6	64.7	63.6	63.0
인삼제품류	62.9	64.2	47.9	63.3	59.7	63.3	58.4	56.5	55.2
식용유지	59.0	56.2	55.5	53.1	56.3	56.9	58.5	56.1	53.7
조미식품	40.9	38.6	35.3	37.9	39.0	36.1	38.8	37.3	44.7
과자류	40.9	44.1	42.0	44.8	42.5	42.1	43.3	40.0	41.4
어육제품	39.2	38.1	39.6	38.2	42.4	42.1	41.7	41.5	41.0
기타식품류	29.1	27.5	28.0	29.1	32.5	23.4	43.7	38.3	40.3
식품첨가물	40.6	39.9	46.8	38.0	38.8	44.1	42.2	39.6	35.6
식육제품	52.3	46.2	39.6	43.9	36.2	29.9	31.8	21.6	30.9
두부류	20.5	23.0	25.1	29.2	32.2	28.0	33.0	32.3	26.5
일반가공식품	27.4	22.8	18.3	22.5	22.3	21.5	21.9	17.6	21.5
건포류	14.0	15.6	17.8	17.1	22.0	26.3	29.8	23.7	20.8
얼음	20.9	14.7	13.8	13.3	12.6	12.4	14.3	12.6	11.7
김치·절임식품	11.6	12.3	15.1	20.6	21.9	19.6	20.6	15.3	9.6
건강기능식품	N.A.								

주: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자료: 식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 각 년도

표 8. 시장 지배적 사업체 보유 산업 현황 (2006)

단위: 백만원, %

산업	주요 업체	매출액	시장 점유율
아이스크림제품류 산업	롯데제과(주)	138,531	36.3
	롯데삼강(주)	123,442	32.4
	해태제과식품(주)	57,944	15.2
	빙그레(주) ¹⁾	29,763	7.8
	효자원(주) ¹⁾	8,380	2.2
면류 산업	농심(주)	1,025,096	52.8
	오뚜기(주) ¹⁾	237,765	12.2
	삼양식품(주) ¹⁾	151,675	7.8
	오뚜기라면(주) ¹⁾	129,941	6.7
	한국야쿠르트(주) ¹⁾	104,800	5.4
특수영양식품 산업	매일유업(주)	83,850	32.4
	남양유업(주)	81,573	31.5
	정식품(주) ¹⁾	32,676	12.6
	파스퇴르유업(주) ¹⁾	25,779	10.0
	일동후디스(주) ¹⁾	15,770	6.1

주 1) 시장 지배적 사업체의 기준 중 하나이상 미달 업체임

자료: 식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 2006 (수정)

표 9. 외식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2006)

단위: 개소, 억원, %

구 분	사업체수		매출액	
	업소	비중	금액	비중
종업원규모				
1-4	493,776	90.35	315,179	61.93
5-9	43,046	7.88	100,724	19.79
10-19	7,181	1.31	45,086	8.86
20명이상	2,500	0.46	47,934	9.42
20-49	2,169	0.40	32,943	6.47
50명 이상	331	0.06	14,992	2.95
총계	546,504	100.00	508,923	100.00

자료: 통계청 www.kosis.kr

에 나타나 있는데, 외식산업의 사업체수는 1982년 20만여 업체에서 2006년 55만여 업체로 약 3배가 늘어난 반면, 매출액은 1982년 7조 4천억원에서 2006년 50조 9천억으로 약 7배로 증가하였다. 외식업체는 업체수의 증가율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 규모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식업체의 규모화는 체인 및 프랜차이즈 형태의 도입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나, 규모화 수준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9의 외식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현황을 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표 10. 업종별 음식점업 현황 (2006)

단위: 개소, 명, %

분류	업체수		종사자수		
	업소	비중	종사원	비중	
주점업	122,071	22.34	280,226	19.32	
다과점업	31,451	5.75	74,452	5.13	
기타음식점업	90,576	16.57	219,264	15.12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261,395	47.83	697,513	48.09
	중국음식점업	21,902	4.01	68,854	4.75
	일본음식점업	5,092	0.93	25,116	1.73
	서양음식점업	9,782	1.79	51,164	3.53
	기타일반음식점업	736	0.13	5,069	0.35
소계	302,406	55.33	876,527	60.43	
합계	546,504	100.00	1,450,469	100.00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2006)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외식업체수는 331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0.1%으로 나타났지만, 매출액 비중은 3%에 육박하고 있다.

외식업체의 규모화에 따른 장점으로는 업체 단위당 자본이 거대화됨에 따라 음식의 품질과 안전성 등과 관련한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다만 외식업계에도 자본의 논리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의 소자본 창업으로 통한 외식시장 진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 한식업이 외식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업종별 음식점업 현황을 보면 표10, 우리나라 한식업체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약 26만 개소로 전체 일반음식점업체수인 30만 개소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업 종사자수는 한식업체의 종사자수가 약 70만명으로 전체 일반음식점 종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식업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2.7명으로 일반음식점업체의 평균치인 2.9명보다도 낮아 한식업체가 타업체에 비해 보다 영세함을 알 수가 있다.

최근 한식업에도 프랜차이즈업이 도입되어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기존의 1인 운영의 소규모 국밥집 내지는 분식점 위주였던 한식업체가 프랜차이즈화 되어 식재료인 원료 농축산물의 구매단위가 커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농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외식의 프랜차이즈 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식 프랜차이즈와 치킨 프랜차이즈업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 외의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가 직접 국내로 진입하거나 국내 업체와 제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수는 약 120개에 달하고, 이중 40개 업체정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6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액은 2005년 3,630억원에서 2007년 6,033억원으로 67%의 성장을 보였고, 매장 수 또한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11).

표 11. 주요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현황 (2006)

브랜드명	회사명	매출액 (억원)	매장수 (개)
놀부	(주)놀부	900	640
원할머니보쌈	원앤원(주)	450	251
큰들F&B	(주)큰들F&B	868	150
이바둑	(주)이바둑	420	60
돈데이	(주)썸미트	200	252
본죽	BJIF(주)	1,850	690

주. 놀부, 원앤원, 이바둑, 돈데이는 본사 식자재 유통매출 기준. 큰들F&B, 본죽은 가맹점매출 포함.

자료: 김병조 외, 식품산업육성 정책방향 연구 (2007)를 일부 수정.

3) 식재료산업

식재료산업은 “농림축수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재료를 생산하거나 농림축수산물 또는 식품재료를 공급하는 일련의 산업”으로 정의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이나 시장 규모의 경우 관련 공식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 식재료 범위 등에 대한 학술적 합의조차 완료되지 못한 현실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은 부분이다.

다만, 관련 업계나 단체의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식재료 시장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2005년 약 17~18조 원¹³⁾ 이던 것이 2008년에는 약 19조~20조원¹⁴⁾ 으로 추정되고, 2010년에는 약 22조원~2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장별 규모로는, 2008년 기준으로 외식용 식재료 시장이 약 71%, 급식용 식재료 시장이 약 24%, 기타 시장이 약 5% 정도로 추정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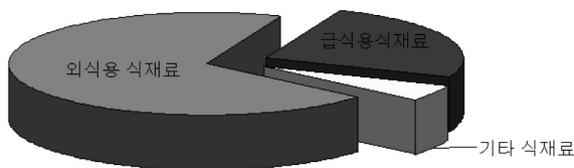


그림 4. 식재료 시장의 세부 비중
자료: 업계 추정치를 재정리.

13) 한국식품연구원의 식품통계(2003년 산업연관표로 작성)에서는 식재료 시장 규모를 약 18조원으로 추정하였음.

14) 증권선물거래소 자료 및 업계 추정치 참조.

15) 주요 식재료 관련 기업으로는 CJ프레시웨이 (구 CJ푸드시스템), 아워홈, 삼성 에버랜드, 신세계FS, 한화리조트, 푸드머스 등이 해당됨.

16) 증권선물거래소 자료 및 업계 자료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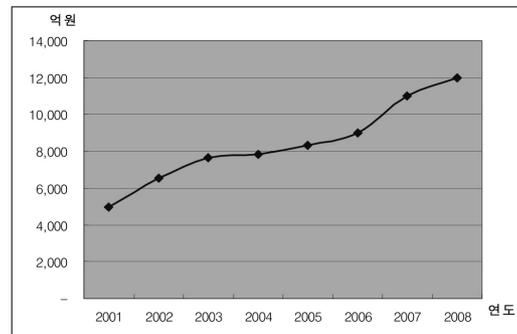


그림 5. 식재료 주요 업체의 매출액 추이

자료: 업계 추정치를 재정리.

데, 이는 2005년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식재료 주요 업체¹⁵⁾의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면, 2001년 약 5천억원이던 매출액이 2005년에는 약 8천 억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2008년에는 1조 2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5). 식재료 업체 중 시장 점유율 1위는 CJ프레시웨이로 2007년 매출액이 약 3천 6백 억원으로 전체 시장 매출의 약 2%를 차지하였고, 시장 점유율 2위와 3위는 아워홈과 삼성에버랜드로 각각 약 2천 억원과 약 1천 3백 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한편, 식재료 주요 업체의 매출이 식재료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 정도(2007년 기준)로 매우 낮은 편으로,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이 소수의 대형 업체와 다수의 영세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재료 세부 시장 중 위탁급식용 식재료 시장의 점유율이 약 40%로 가장 높고, 프랜차이즈 외식용 식재료 시장의 점유율도 약 1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영 급식용 식재료 시장과 일반 외식용 식재료 시장의 점유율은 각각 10% 미만으로 추정된다(그림 6).

식재료산업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외식용 식재료 유통인데, 식재료의 구매업체의 특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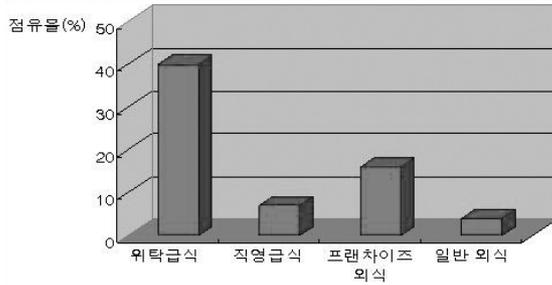


그림 6. 식재료 주요 업체의 매출액 추이
자료: 업계 추정치를 재정리.

따라 다르다. 즉, 소량의 식재료를 수시로 구매하는 일반형 외식업체와 대량의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경우 구매 식재료의 유통 경로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일반형 외식업체에 주로 납품하는 식재료의 유통경로가 그림 7과 같이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시장이나 식자재 전문납품업체(벤더) 등을 경유하고 있어 유통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최근 농협이 식재료 매장을 유통센터(고양, 수원, 양재센터)에 개설하고, 다른 대형소매할인점들이 식재료 대량 구매 고객을 위한 전문 매장을 만드는 등 유통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급식업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전문 유통업체들도 일반형 외식업체에 일부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우에도 전문납품업자를 경유하거나 전문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한우 등의 일부 국산 축산물의 경우 산지 농협 등과 연계하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횡집이나 수산물 전문 음식점은 산지 도매시장이나 수협 공판장 등에서 주기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인형 (프랜차이즈형) 외식 업체의 경우 그림 8, 식재료 구매 단위가 크므로 산지나 도매 단계에서 식재료를 본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식재료 전문 유통업체와 계약 구매를 하는 등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주요 식재료만 본사에서 직구매하여 배송하고, 나머지는 매장별로 도·소매 단계의 상인들에게 구매하기도 한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체가 산지와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자사 소비를 위한 식재료를 구매하는 단계를 넘어 PB(Private brand) 상품을 개발하여 일반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등의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 사례가 발생하여 주목된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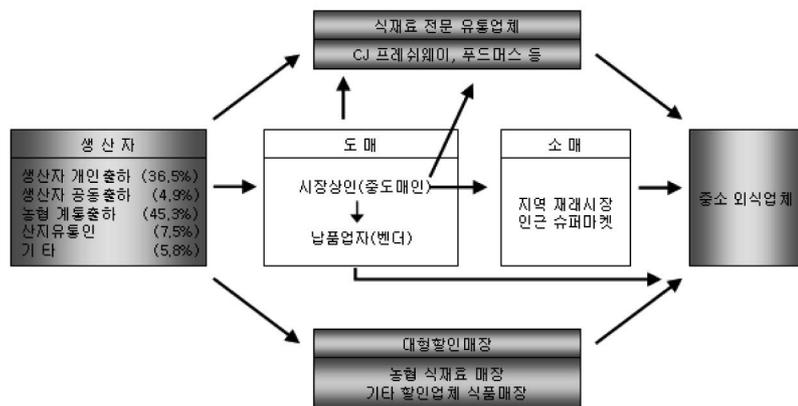


그림 7. 일반형 외식업체용 식재료의 유통 경로 (농산물의 경우)
주: 생산자의 출하 비율은 “200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작성.

17) 즉석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1994년 창업, 연 매출 약 200억원, 가맹점 400여 곳 보유)의 경우, 주원료인 쌀을 전북 정읍 소재 송산 영농조합의 “생명의 쌀”과 계약 재배하여 연간 4,500톤 이상 구매하고 있음. 이 업체는 “김가네 쌀”이라는 자체브랜드(PB)를 개발하여 세척미, 특미, 일반미의 3종을 수원지역 5개 학교의 단체급식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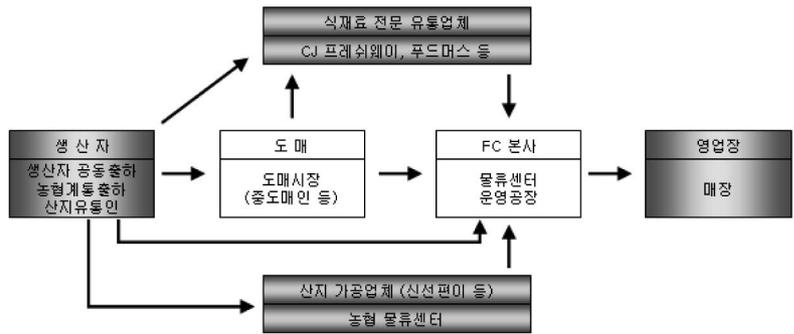


그림 8.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용 식재료의 유통 경로 (농산물의 경우)

축산물과 수산물도 원산지에 따라 유통경로가 차이가 있는데, 수입산의 경우 전문수입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국산 식재료는 도매시장 구매나 산지 직거래가 대부분이었다

III. 향후 전망

최근 들어선 신정부는 식품산업을 신 성장 동력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의 농림부를 농림수산물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식품산업분부를 설립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자생적으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핵가족화 등에 따른 식품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식품 소비 시장의 확대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보다 외식이나 가공식품을 소비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2차 내지는 3차 산업인 식품산업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산업 자체의 운동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1차 산업인 농림축수산업과 식품산업은 성격이 분명 다르다. 다만, 정부는 과거 규제 중심의 식품산업 관련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발전 가속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관련한 이슈로는 농림축수산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론될 것으로 생각된다. 농림부가 농림수산물식품부로 바뀌면서 정책의 대상이 생산 농가에서 식품산업계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들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식품산업 부문에서 국산 원료 사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수입 원료 사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소모적 논의를 마무리 지을 시점이다.

또한 정부는 식품업계와 이해가 상충되는 또 다른 대상을 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질 소비자층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편인데,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식품산업 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소비자의 후생 증대와 식품산업의 발전은 어느 정도 제로섬(zero-sum) 관계에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묘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성 강화 노력과 식품 안전 정보와 관련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risk communication)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 안전과 관련한 규제나 정책 마련의 경우 사전에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소비자의 후생과 업계의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 산업별로 볼 때, 식품가공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업체에 대한 시장 집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요 가공식품시장의 독과점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업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흔히 회자되는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다. 또한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전통식품제조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 또한 성장 속의 규모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후에는 “그냥 동네 식당 한번 차려보겠다”라는 구상이 상당히 무모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등의 거대 자본과 시스템이 우리나라 외식산업을 장악해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반짝이는 아이템이나 전문 노하우 등을 가지고 틈새를 공략하여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형소매할인점에 입지를 빼앗기는 동네 상점들의 모습이 외식업계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끝으로 식재료 산업은 아직 연구나 정책의 상대적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 규모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인데, 이는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관련 연구자의 관심 부족과 식재료 산업 현장 문제 등이 복합된 결과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식재료산업을 식품가공 또는 외식산업과 농림축수산업을 연계시키는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식재료의 범위 등을 확정하고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식재료”, “식자재”, “식재”

등이 혼용되고, “신선편의식품”과 “신선편이농산물” 등이 혼재된 현 상태로는 식재료 산업 발전이 요원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식품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코드를 지니고 있어,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1차 생산물의 농림축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응책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병조 외. 2007. 「식품산업육성 정책방향 연구」. 한국외식정보.
2. 김성훈 외. 2009. “식재료 산업의 동향과 전망: 외식용 식재료를 중심으로” 「농업전망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김철민 외. 2007. 「농업관련산업의 GDP와 종사자수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년도 「식약청 통계연보」.
5.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식품공전」.
6. 식품저널. 2008. 「식품유통연감 2008」.
7. 이동필 외. 2001. 「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kr.)
9. 한국외식정보. 2009. 「한국외식연감」.
10. 황수철 외. 2005.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세부프로젝트 비교연구 및 개발」. 농정연구센터.
11. Kim, Soungun. “Market Concentration of the Processed Food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1(5). 2008.
12. Kim, Soungun and Choi Ji-Hyeon. “Linking Food Industry and Agriculture: The Case of Fruit-Juice Industry and Korean Food Franchis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1(2). 2008.